

고위험산모 · 신생아치료 점검 시급

빅5 민다 큰코 다친 복지부...서울엔 전문시설 전무 난산보다 '분만 취약지' 해결 급급...지방중심 사업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추진한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에서 서울이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중 3명의 혈액에서 세균이 검출돼 의료과실 가능성이 잠चे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당국의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치료 인프라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위험 산모와 중증질환 신생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영 적자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전문시설 설치와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국내에서 고위험 임신부 치료시설을 갖춘 곳은 60개 수련병원으로 이곳에는 309병상이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이는 고위험 산모대상 필요병상 1147개에 비하면 충족률이 고작 26.9%(2015년 기준)다.

이에 복지부는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매년 3개소씩, 올해부터는 4개씩 늘어나도록 관련 예산을 배정해 올해까지 12곳을 지정(현재 운영은 9곳)했다.

하지만 사실상 서울은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현재 운영중인 ▲강원대 어린이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충남대병원(2014년) ▲인제대 부산백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2015년)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2016년) 중에서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 1곳뿐이다.

턱없이 적은 예산에다 '분만 취약지'를 해결하라는 또다른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결과다.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고위험 산모 ·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지정돼 내년부터 가천대길병원, 부산대병원(양산), 경북대병원(칠곡)과 함께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민시지탄(민시지탄)'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또 이를 두고 "복지부가 서울대 · 서울아산 · 세브란스 · 삼성서울 · 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만 민다 큰코 다친 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 인프라는 대표적 인공비율·저수익 시설이라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출산 · 분만 관련 의료시설의 수익은 다른

진료시설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쳐 의료기관이 선호하지 않는다.

환자 면역체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책임도 뒤따른다. 고도의 장비가 필요한데 숙련된 의료진과 마취, 내과 등 여러 진료과의 협진도 필수다.

반면 저출산으로 진료과목의 미래는 불투명해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는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해는 불과 96명에 그쳐 지난 2006년 212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대학병원조차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로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다.

실질상 민간에서 고위험 산모 · 신생아 치료 인프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에 나설 수 없고 기대도 무리다.

반면 고위험 산모 · 신생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늦은 결혼과 고령산모 증가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35세 이상 산모는 2005년 10.6%(4만6000명)에서 2015년 23.9%(10만1500명)로 늘었다.

고위험 산생아도 증가 추세다. 전체 신생아중 조산아(임신 37주 미만)는 2005년 4.8%에서 2015년 6.9%로, 저체중아(2500g 미만)는 2005년 4.3%에서 2015년 5.7%, 다테이는 2005년 2.2%에서 2015년 3.7%로 각각 증가했다.

한때 출생아 10만명당 17.2명(2011년)에 달했던 모성사망비는 2015년 8.7명까지 낮췄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0명 · 2014년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뉴스시



내가 예쁘게 만들어줄게 18일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금나래중앙공원에서 아이들이 소복하게 쌓인 눈을 모아 눈사람을 만들고 있다.

질병본부 "이대목동 신생아 4명중 3명 '그람음성균' 의심"

질병관리본부가 "사망한 신생아 3명이 사망전 시행한 혈액배양검사서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1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사망사고와 관련, 17일 죽자 대응팀을 이대목동병원에 파견해 서울시와 함께 현장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 환아 의무기록을 확보 · 분석한 결과 신생아 중환자실 환경감체, 사망환아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확한 세균 균종은 오는 20일 이후 확인할 전망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병원측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세균은 '그람음성균'의 일종으로 추정된다.

이 균에 속하는 것은 대장균, 녹농균, 폐스트균, 임질 · 클라미디아 등 수많은 병원성 박테리아가 포함되며 거의 전세계, 거의 모든 생활 환경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사망원인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상적이나 역학조사에서 중요한 의미는 없다. 다만 세균의 침투 경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시

베네수엘라서 영양실조 어린이 사망자 급증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가 환자와 이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지난 5개월동안 베네수엘라 전국 17개주에 있는 21개 공립병원을 직접 조사한 결과 영양실조 상태인 어린이 숫자가 기록적으로 증가했으며, 수 백명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베네수엘라 소아학회의 우니아레스 우리베나 페디나 박사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어린이들이 매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에서 병원으로 오고 있다"며 난민캠프에서나 종종 볼 수 있는 극도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이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부 바르키시메토의 아동병원에서 근무하는 밀라그로스 에르난데스 박사는 2016년말부터 영양실조 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들어 영양실조 환자 증가세가 끔찍할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관련 통계를 철저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의사들은 보건 당국이 진료기록에 영양실조라고 적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NYT에 폭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 통계 자료에서조차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경제난으로 초래된 보건 위기를 어느정도 들여다 볼 수는 있다. 2015년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생후 4주 이하 신생아 사망율이 2%로 2012년 0.02%에서 무려 10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 산모 사망율 역시 거의 5배가 증가했다.

지난 4월 보건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연히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세 이하 어린이 1만448명이 사망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30% 늘어난 규모이다.

NYT는 9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지 의사들은 인터뷰한 결과, 이들이 지난 해에만 치료한 영양실조 아동 환자가 약 2800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중 약 400명은 사망했다. 카리카스에 거주하는 소아과의사인 리비아 말차도 박사는 "내 생애에 이렇게 많은 굶주린 어린이들을 본 적이 없다"며 토로했다.

NYT는 베네수엘라 약국 체인 로카텔의 전국 64개 매장 중 어린이 영양실조를 치료하기 위한 영양제를 비축하고 있는 곳은 1곳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독일 함부르크 지하철역서 소규모 폭발

독일 북부의 항구도시 함부르크의 한 지하철 역에서 "불꽃놀이 장비처럼 보이는" 폭발물이 터져 수사중이라고 경찰이 밝혔다.

함부르크 경찰은 일요일인 17일 저녁(현지시간) 시내 베델 지하철역의 플랫폼에서 "작은 폭발"이 발생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 이 때문에 유리문이 파괴되었지만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제보를 받고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포커스 잡지는 이날 발견된 가방에는 폭죽으로 보이는 폭발물들이 들어있었으며 테러범의 소행이라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경찰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日 홋카이도서 한국인 관광객 태운 버스 전복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대형 관광버스가 갓길로 전복돼 6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일본 NHK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4시40분경 일본 홋카이도 가미후라노정(上富良野町)에서 발생했다. 버스는 홋카이도 비에이정(美瑛町)에 있는 운전에서 후라노시(富良野市)의 관광시설로 향하던 중 도로 원편 갓길로 쓰러졌다.

버스에는 한국인 관광객 34명과 운전 기사 1명이 타고 있었다. NHK는 사고 직후 탑승자 일부가 중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지만 운전 기사를 포함한 6명이 목이나 허리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정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노면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스시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포경상**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eongChang 2018
PyeongChang 2018